



지난 13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에서 촬영된 '쯔진산(紫金山)-아틀라스 혜성'. /연합뉴스

해가 지면 서쪽하늘 혜성 보세요

'쯔진산-아틀라스 혜성' 맨눈 관측...쌍안경으로 혜성 꼬리까지 관찰
국립광주과학관·어린이천문대·전남지역 시민천문대 등 이용 가능

'쯔진산(紫金山)-아틀라스 혜성'(C/2023 A3)이 태양 주위를 무사히 빠져나와 북반구 초저녁 서쪽하늘에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혜성은 9월 27일 태양에 가장 가까운 근일점(近日點)을 지났으며 지난 12일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近日點)을 통과했다. 현재 혜성은 지구와 태양 사이 궤도를 지나고 있는데 지구와 혜성간 거리는 0.47AU(Astronomical Unit·1AU=지구와 태양간 거리)로, 대략 7000만km이다.

◇혜성,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북반구에서도 일몰(16일 광주기준 5시56분) 후 박명때 서쪽 하늘에서 1시간가량 혜성을 볼 수 있게 됐다.

해가 지면 서쪽하늘에 '개밥바라기'라고도 불리는 금성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그리고 얼마 후 금성 오른쪽에 또 하나의 밝은 별이 눈에 들어오는데 목동자리 알파(α) 별인 아크투르스(Arcturus)이다.

현재 혜성은 금성과 아크투르스 사이에 자리하며, 16일 기준 고도는 아크투르스와 비슷하다. 혜성 밝기는 2등급 전후로 쌍안경 등으로 혜성 머리와 꼬리까지 관찰할 수 있다.

혜성은 '코마'(Coma)라고 부르는 머리와 꼬리(이온꼬리·먼지꼬리)로 구성된다. 국립광주과학관과 광주 어린이천문대, 전남지역 4개(고흥·곡성·순천·장흥) 시민천문대를 활용하면 더욱 좋겠다.

날이 지날수록 혜성고도는 높아지는 반면 밝기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혜성 관측을 위한 관측은 날씨다. 기상청 중간예보에 따르면 광주기준 16·17일 맑음, 18일 비, 19일 흐린 후 맑음으로 예보돼 있다.

◇혜성, 누가 처음 발견했나? 2023년 1월 9일 중국 난징(南京)시에 자리한 '중국과학원 쯔진산 천문대'에서 첫 발견했다. 1934년 세워진 쯔진산

천문대는 '중국 현대 천문학의 요람'으로 불리는 유서깊은 곳이다. 그리고 2월 22일에 '소행성 지상충돌 최종 경보시스템'(ATLAS)에 의해 재발견됐다. 확인결과 같은 혜성으로 확인돼 '쯔진산-아틀라스 혜성'(C/2023 A3)으로 명명됐다.

혜성 명칭은 발견자(기관)의 이름을 붙인다. 또한 공식명칭에는 혜성 궤도특성, 발견 년도와 월 정보가 담겨있다.

1월 상반기 A, 하반기 B 등 숫자와 혼동하기 쉬운 I와 Z를 제외한 나머지 알파벳으로 발견 시점을 표기한다. 공식명칭 'C/2023 A3'의 경우 'C'는 비주기(非週期)혜성에 붙이는 부호이며, '2023 A3'은 2023년 1월 상반기에 3번째로 발견된 혜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어떤 혜성을 볼 수 있나? 혜성은 과거에 태양의 상전이었던 현재에는 우주와 지구 생명의 비밀을 품고 있는 '타임 캡슐'로 주목받고 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혜성은 좀처럼 드물다. 1996년 3월 '하쿠타케(百武)혜성'(C/1996 B2)과 1997년 봄 '헤일-밥 혜성'(C/1995 O1)이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혜성이다. 이 가운데 '헤일-밥 혜성'은 20세기 최고의 혜성으로 천문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76년 주기의 '할리 혜성'(1P/Halley)은 37년 뒤인 2061년 7월에야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올해 4월과 9월에 ATLAS 탐사 프로그램에 의해 각각 발견된 같은 이름의 '아틀라스 혜성'(C/2024 G3, C/2024 S1)이 내년 1월과 10월에 태양에 접근한다. 과연 두 혜성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천문학자와 천문 애호가들의 기대가 크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쏟아 IT 정보

네이버, 블로그 창작자 지원

네이버는 블로그 창작자들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피드형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피드메이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블로그 창작자는 오는 27일까지 피드메이커 모집 페이지에서 ▲맛집·카페 ▲푸드 ▲패션 ▲뷰티 ▲리빙 ▲여행 ▲아웃도어 중 자신이 활동할 분야 1개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에 어울리는 자신의 블로그 콘텐츠 URL(인터넷주소)을 제출하면 된다.

네이버는 총 700명의 블로그 창작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창작자들은 다음달 18일부터 내년 3월 9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활동하며 매월 10건 이상의 블로그 콘텐츠를 발행해야 한다. 선발된 피드메이커에게는 콘텐츠 제작 교육과 적극적인 창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리워드(보상)가 제공된다. /연합뉴스

KT-하이마트, 소상공인 할인

KT가 롯데하이마트와 손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T의 소상공인 맞춤형 결합 상품 '오랫따자 패키지', '하이오더', 'AI 로봇' 이용 고객은 하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냉장고·에어컨 등 대형 가전, 청소기·공기정화기 등 생활 가전, 삼성 노트북 등 스마트 가전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생활 가전은 최대 7%까지 할인 구매 가능하다.

KT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사장님 혜택존'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롯데하이마트와의 제휴를 포함해 '배달의 민족' 신규 광고비 페이백, '디너의 여왕' 마케팅 비용 할인 등 총 9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카카오, 이모티콘 자유이용권

카카오는 오는 28일까지 약 2주간 '이모티콘 자유이용권 뽑기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놀러서 뽑기' 버튼을 눌러 참여하면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 3일, 7일, 14일, 1개월, 1년 무료 이용권 5종 중 1개를 받을 수 있다. 당첨된 이용권은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LGU+ '유폴투블 럭키데이'

LG유폴플러스가 월 정기 멤버십 혜택 프로그램 '유폴투블' 참여자 100만 돌파를 기념해 올 한 해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혜택 5종을 모두 제공하는 '유폴투블 럭키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15일 밝혔다. 인기 혜택 5종은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1개,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2잔, 단권 1만원 금액권, 다이소 5천원 금액권, 네이버플러스멤버십 1개월 이용권이다. /연합뉴스

'화성에 한 발자국 더'...스페이스X 5차 시험비행 성공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다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스타십은 지난 13일 오전 7시 25분(미 중부시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시'에서 발사됐다.

발사 뒤 약 3분 만에 1단 로켓 추진체인 슈퍼헤비가 스타십에서 순조롭게 분리됐고, 발사 약 7분 뒤에는 슈퍼헤비가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와 수직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발사탑의 '젓가락 팔'을 사용해 슈퍼헤비를 공중에서 잡는 획기적인 기술이 시도됐고, 첫 시험만에 성공했다.

영화 속 괴물 고질라에서 이름을 따 메카질라

(Mechazilla)로도 불리는 대형 로봇팔은 역추진하며 하강하는 대형 로켓을 붙잡아 무사히 발사대에 거처했다.

한편, 스타십의 시험비행은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무인 비행이다. 스타십은 길이 50m, 직경 9m로 내부에 150t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역대 최대 로켓 슈퍼헤비(길이 71m)와 합체하면 발사체의 총길이는 121m에 달한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올해 3월과 6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스타십의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국립광주과학관으로 오세요”

'광주시교육청 수학·과학 축제' 19~20일 체험·탐구·공연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024 광주광역시교육청 수학·과학 축제'를 개최한다. 광주시교육청 주최, 광주시 창의융합교육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수학+과학, 놀라

움으로 가득찬 하루'를 주제로 열린다. 축제는 수학·과학체험마당, 과학놀이마당, 더불어과학탐구마당, 과학전시마당, 수학놀이마당, 공연마당 등 8개 영역에서 190여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수학·과학 축제는 국립광주과학관 가을과학주간, '나, 과학 떠나봐...' 행사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19' 15일 발효과학 주제 성인 대상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오는 25일 '발효 과학'을 주제로 성인들을 위한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 9회차를 맞이하는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은 성인 관람객들을 위한 행사로 과학관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넘어 성인들이 과학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과학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행사에서는 사이언스 다이닝, 천체투영관에서 진행되는 '발효 과학' 과학 토크쇼, 전문가와 함께 전통 발효주에 대해 알아보는 '막걸리 빛기&소믈리에' 체험, 세계의 치즈를 알아보고 자신의 취향을 찾아보는 '치즈 아카데미'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발효'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광주전남 제1호 향토기업인 '보해양조'의 후원을 통해 막걸리가 제공된다.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은 이달 18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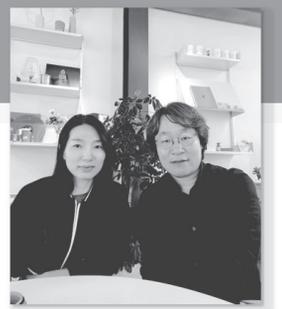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